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11.5.(수) 15:30

해외 유력 언론사 활약 한인 언론인, 모국 찾는다

-동포청, 11월 11~16일 미국·아르헨·일본 주요언론 종사 전현직 한인 초청
- 한국인 최초 풀리처상 수상자, 중남미 첫 한국인 뉴스 앵커 등…강연 진행

- 미국, 아르헨티나, 일본 등 해외에서 유력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포 언론인들이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한다.
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3개국 현지 재외 동포 언론인 3명을 초청해 국내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고 밝혔다.
 - 방한 언론인은 ▲미국 강형원 前 LA타임즈 사진기자(한국인 최초 풀리처상 2회 수상) ▲아르헨티나 황진이 前 국영방송 Telefe TV 메인 앵커(중남미 최초 한국인 뉴스 앵커) ▲일본 신기 기자(지지통신사 외신부 소속) 등 3인이다.
- 이들은 방한 기간 국내 주요 언론과의 간담회 참석을 비롯해 국내 고등학생·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, 국내 언론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.
 - 또한 인천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돌아보고,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모국 언론 환경 및 미디어 구조에 대해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.
- 김경협 청장은 “이번 초청을 통해 세계 주요 언론 현장에서 활약하는 한인 언론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, 국내 언론계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희경	032-585-3207
		담당자	주무관	권주희	032-585-3211